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 요.		
파견대학	본 대학은 밴쿠버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가 넓습니다. 새로 지은 빌딩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수업듣는 교실은 그냥 강의실과 같습니다. 분위기는 저희 한국학생끼리 들어서 친해질수록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만의 룰인 EO(English Only)를 나름 지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수업시간에는! 다운타운과 메트로타운 등 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	저희는 분반하지 않고 순천향대학교 학생들끼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사 님은 여자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칼 같으신 분이었어 요.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지켜서 끝내주시고 그런 분이였습니다. 수업 내 용은 밴쿠버에 대해 배우고 여러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과제는 간단히 저희가 액티비티한 거에 대한 종이 채우기 정도이고 가끔 나만의 저널쓰 기라는 걸 해서 라이팅 실력을 봐주시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영어회화수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	액티비티에는 밴쿠버 박물관 방문, 컬링, 스노우슈잉, 그랜빌아일랜드, 랑가라 학생들 만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추가비용이 든 건 스노우슈잉 뿐이였고요 혹시 옷이 젖을 까봐 상의 하의 빌리는 것에 돈이 듭니다하지만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따숩게 입고 가면 되요! 각 액티비티		

후에는 간단한 과제를 주셨어요. 컬링의 경우 준비물은 장갑 필수입니다. 다 즐거웠던 액티비티에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진짜 밴쿠버의 날씨는 지 멋 대로입니다. 비가 3일정도 내내 오다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또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우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밴쿠 버 사람들은 비가와도 우산을 잘 안 쓰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귀찮으면 방수용 가벼운 점퍼만 입고 우산 안쓰셔도 되용!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정말 안전 합니다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요 대부분 그런데 개스타운에서 차이나타운 가는 거리 한 곳에 홈리스가 많고 무서운 사람들이 분포해있 어서 거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제 홈스테이 가족은 부부와 일본인 유학생 한 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 었습니다. 너무 가족들이 좋아서 다시 밴쿠버에 간다면 찾아뵐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 같아서 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 네요. 저희 가족은 다른 집과 다르게 7시30분에 저녁식사를 했어요. 하지 만 보통 캐나다 저녁은 5시부터 6시 반 사이로 일찍 먹습니다. 유의 사항 은 젖은 빨래를 절대 방에 가져가지 말고 샤워 시 물 튀기지 않는 것들 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요 제가 정말 늦게 들어간 날 빼고는 거의 매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눠서 이거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홈스테이 가족이 싸주셔서 런치백을 갖고 다녔고 저녁은 3주라는 기간동안 밴쿠버를 여행하기 바빠 거의 사먹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식당에 대한 의견은 개인차이인 것 같지만 저는 파이브가이즈가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햄버거 집이에요! 꼭 가보세요~~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통

집에서 5분정도 걸어 버스를 타고 스카이트레인으로 환승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통은 한국과 비슷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72만원(800달러)	
-식비 : 300달 -교통(2월) : 6달 -쇼핑 : 400달	-20달러 남았음 (밴쿠버 공항 면세점 살 거 없어요)	
인천공항-집	16000원	
합계	약 2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니까 방수 옷 챙기시면 좋고요! 우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그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진 같이 찍자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찍으시면 되요 좋은 추억입니다.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저녁도 자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때 아니고 영어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홈리스(우리나라로 거지..?)가 보이면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어떤 홈리스는 뒤에 쫓아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무서워용 다운타운 메트로타운 가면 재밌어요! 한국 라면 김 등 여기서 사려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울 걸 대비해 조금은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던 이번 겨울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소중한 인연도 맺고 잊을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름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도 같이 하며 처음에는 서로 몰랐던 저희끼리도 친해질 수 있었고 밴쿠버에서만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위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3주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 가봐야 할 곳을 하루하루 일정을 짜 다녀왔고 3주 뒤 저는 이 기간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나라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끔 다운타운에서 한국인이 워킹홀리데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해서 캐나다에 오고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선은 랑가라 컬리지에 다시 오고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교환학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도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 번 다녀오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홈스테이 가족들과♥

랑가라 컬리지



친구네 집 가는 길에 찍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얼음 먹고 있는 귀여운 모습



스노우슈잉 액티비티